

우상의 눈물

등장인물 : 기표, 나, 형우

반 기표 + 재수파 { 우상의 대상 < 담임 + 반장 경우 재수파 해체 계획
 폭력적임
 반의 심세

'나' 임시 반장 때 재수파를 간섭해 구타 당함 → 담임 '나'가 반장을 맡아 반 가정환경을 알아오길 원함
 ↑ 거절 - 형우를 추천

→ 형우 또한 구타를 당함 → 담임 + 형우 재수파 해체 기표의 불만 계획 →

나 + 형우 → 기표의 권임을 도와줌 →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함 → 재수파 + 기표
 ↓
 담임 + 형우의 구원
 ↓
 기표의 불만 재수파를 해체 하기 위한 명목
 → 형우는 기표를 용서한 척 구원함으로(위선) 긍정적 이미지를 얻음
 ↑
 기표는 재수파에서 고립됨

→ 기표의 가난한 가정환경을 알아냄 → 반에서 기표의 가정환경을 밝히며 모욕을 함으로써 기표를 두려움과 우상의 대상에서 가난에 협박하는 동점의 대상으로 전락시킴 + 기표에게 돈을 뜯기던 재수파 아이들을 가난한 기표를 위해 헌신하는 친구로 미화함 → 기표의 불우한 환경이 소문이 커져 신문에 실린 영화사에서 촬영하려 함

→ 기표는 점점 약한 모습을 변하곤 너무 무섭다며 포현이를 남기기 사라진다

[기표 - 폭력, 갈취, 이성녀자 집단 성폭행 ... - 가시적 폭력
 형우, 담임 - 재수파와 기표를 몰락 주동자, 조리돌림 - 비가시적 폭력

1980년대 독재 정권 권력의 폭력성의 형상화

우상의 눈물(인물 관계도)



기표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
(폭력적으로)



형우

담임선생님께 권력을 부여받음
(합법적 권력)



나

합리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판단할 줄 앎

← 미화
-적대감
-우의, 신뢰

배경:(시간)1970년대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출세 지향적인 시대
(공간)고등학교 교실

줄거리:

반장 형우는 기표의 낙제를 막기 위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아 기표의 커닝을 돕는다. 그러나 원치 않는 도움에 기분이 상하는 기표는 시험이 끝나자 재수파들을 불러 형우를 때린다. 이후 병원에 실려간 형우에게 기표를 따르던 재수파들이 제각기 몰래 찾아와 형우에게 사과를 하며 기표의 욕을 했다. 재수파들 역시 기표에게 시달렸고 가난한 기표의 생활비를 위해 피를 팔던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날 기표가 없는 틈을 타서 형우는 급우들 앞에서 기표의 가난한 가정형편을 폭로한다. 형우는 기표의 악마적인 행동을 미화하며 모금운동을 제안하고, 그러자 기표는 폭력적인 학생에서 불쌍한 소년으로 보였고 이제는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고 있고, 기표 역시 자꾸만 몸이 움츠려들고 얼굴을 붉히는 학생이 되어갔다. 기표의 이야기는 퍼지고 퍼져 신문에 실리고 영화제작까지 이뤄지게 된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기표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남긴 후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된다.

(두 개의 폭력)

-기표의 폭력:보이는 폭력(가시적 폭력)

-담임,형우의 폭력:진실과 호의를 가장한 합법적 폭력,보이지 않는 폭력(비가시적 폭력)

작품의도:1970~1980년대의 사회 역사적 현실을 교실 상황을 활용하여 비판하려 함
제목의 의미: '우상의 눈물'에서 우상은 '나'를 비롯한 학급의 아이들 사이에서 비록 허상이기는 하나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온 기표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상이 흘리게 되는 눈물이란, 기표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담임과 형우의 위선적인 폭력으로 인해 맞게 되는 최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상의 눈물〉 - 전상국

1. 들어가기

「우상의 눈물」은 합법적인 권력의 폭력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학급이라는 작은 사회를 통해 합법을 가장한 폭력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질서와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길들이고자 하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비판하고 있다. 작품 속 배경으로 등장하는 1970년대와 작품이 발표된 1980년대는 독재 정치가 만연한 때이며 독재 정권의 폭력이 부당한 규율의 내면화와 위선의 활용으로 변모하였다. 즉,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제5공화국의 슬로건 하에 자행되었던 언론 통폐합,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탄압 등 정치적 상황 속에서 행해졌던 당시의 '권력'에 대한 풍자적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2. 작품 개관

갈래	단편 소설, 풍자 소설	성격	풍자적, 비판적, 우의적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배경	시간적 배경 - 1970년대 말 공간적 배경 - 고등학교
주제	호의를 가장한 위선의 폭력성		
표현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내부의 서술자 '나'가 다른 인물과 사건들을 관찰하고 평가함 - 인물 간의 대립으로 인한 사건 전개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한 특정 인물의 분석적 해석이 나타남 - 가시적인 폭력과 위선적이고 비가시적인 또 다른 형태의 폭력에 대한 비판적 의미가 드러남 		

3. 줄거리

발단	새학기에 임시 반장이 된 '나(이유대)'는 메스껍게 굴었다는 이유로 최기표를 비롯한 재수파에 폭행을 당함.
전개	새 담임은 원활한 학급 통제를 위해 '나'를 통해 최기표의 정보를 얻고 그의 힘을 뺏으려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대신 임형우를 추천함. 형우가 반장이 됨.
위기	형우는 기표를 무력화하려는 목적 아래, 표면적으로는 기표를 돕는다는 명목을 내세워 담임의 묵인 하에 커닝을 주도하지만 이로 인해 기표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어 재수파들에게 폭행을 당함. 하지만 형우는 끝까지 가해자를 밝히지 않음.
절정	담임과 형우의 계획에 의해 기표와 재수파는 미담의 주인공으로 미화되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감동시킴. 이에 재수파는 와해되고 기표는 부끄러움을 타는 소극적인 학생이 되어 학생들은 더이상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됨. (수능특강 수록)
결말	이에 두려움을 느낀 기표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남긴 채 사라짐. 담임은 학교를 찾아 온 기표 어머니를 냉대하고, 자신의 계획이 무산됐다고 하며 화를 냄

4. 상징적 소재

구원

- 기표를 위한 게 아닌 통제자(담임과 반장 형우)를 위한 것
- 위선적인 권력, 시혜적(은혜를 베푸는) 태도

우상

- '나'를 비롯한 학급의 아이들 사이에서 신화적 존재로 굳림해온 기표

편지

-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담임과 형우의 위선적인 폭력으로 인해 맞게 되는 기표의 최후 (= 제목의 뜻)
- 우상으로서의 몰락

5. 인물 관계도

나(이유대)

- 성적이 우수하며 상황과 대상에 대한 판단 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그려짐
- 학급에서 일어나는 기표, 형우, 담임 선생님 간의 갈등과 대립 등에 대해 판단하고 해석함

임형우(반장)

- 리더십이 강하고 걸으로는 학급을 헌신적으로 이끄는 모범생임
- 담임 선생님과 결탁하여 기표와 재수파를 위선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무력화시킴

담임 선생님

- 걸으로는 '자율'을 강조하며 학급을 민주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비도덕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학급을 손쉽게 이끌어 가려함

최기표

- 재수파와 더불어 학급을 장악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름
- 형우와 담임 선생님의 의해 불우한 가정 형편이 낱낱이 밝혀지며 두려운 존재에서 동정받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함



『우상의 눈물』

- 전상국 -

갈래 단편 소설, 풍자 소설

성격 풍자적, 비판적, 우의적

주제 호의를 가장한 위선의 폭력성

서술자 나

시점 1인칭 관찰자(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관찰하고 판단하여 서술함.)

배경

①시간: 1970년대

②공간: 고등학교 교실

전체 줄거리

발단	'나' 는 재수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기표를 비롯한 재수파에게 사적 보복을 심하게 당함.
전개	형우가 반장으로 임명되고 반장과 담임 선생은 기표가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함.
위기	시험 도중 기표를 돕기 위한 커닝을 시도한 것으로 인해 형우는 기표에게 폭행을 당하고 입원함. 그러나 가해자를 끝까지 밝히지 않음.
절정 <수룩>	담임과 형우의 계획에 의해 기표와 재수파는 미담의 주인으로 미화되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감동시킴. 이후 기표는 점점 길들여지고 무기력해짐.
결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개되는 일련의 일들로 인해 기표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라는 편지를 남기고 가출함.

(1)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 해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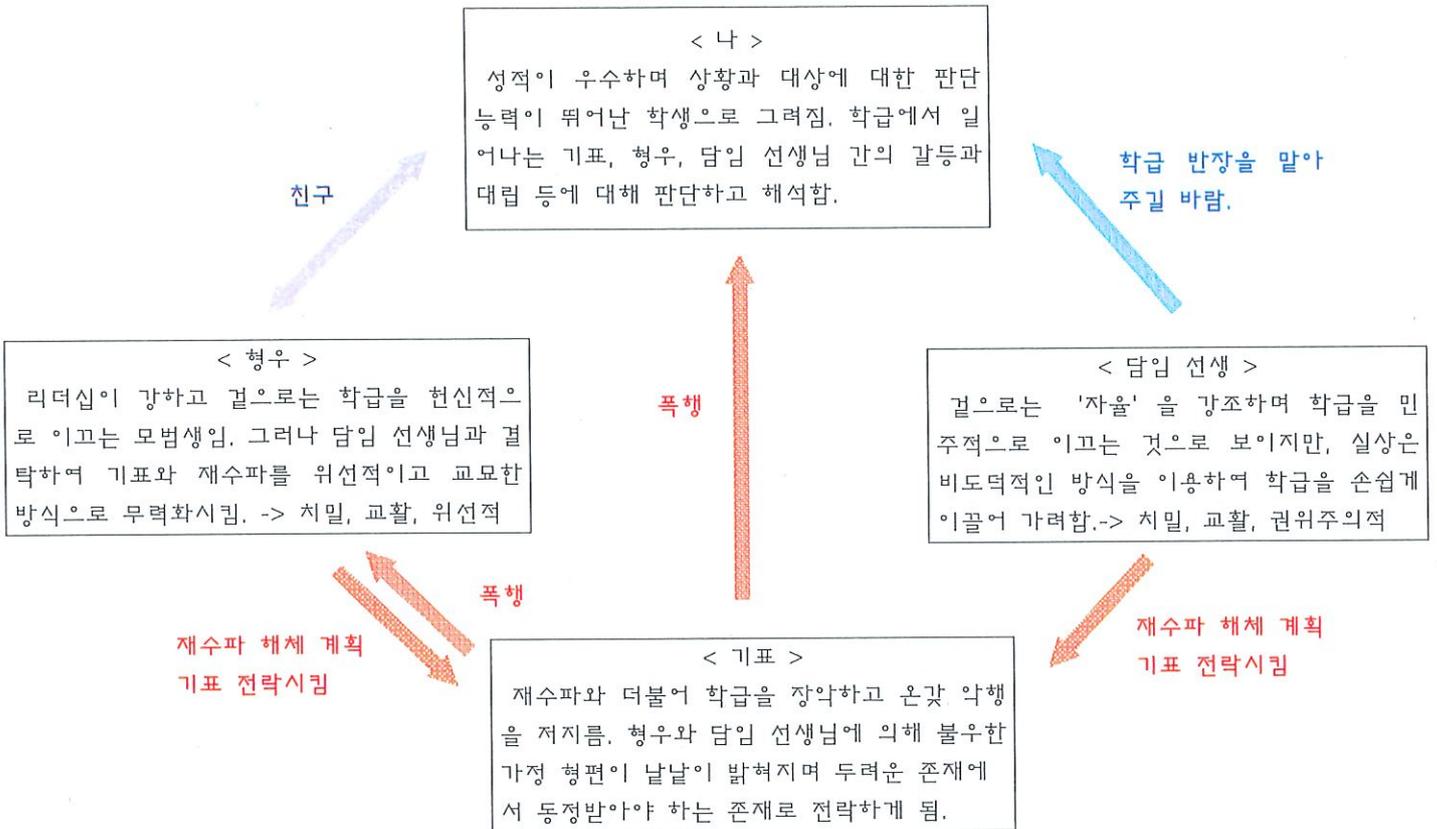
- 작품 속 배경인 1970년대와 작품이 발표된 1980년대는 독재 정치가 만연한 때이며 독재 정권의 폭력이 점점 가시적인 것에서 비가시적인 형식으로 변모하던 시기임.
-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은 부당한 현실과 불평등한 사회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저항하고자 하는 대상 또한 불분명하게 됨.

∴ 1970~1980년대 사회 역사적 현실을 교실 상황을 활용하여 비판함.

(2) 제목의 의미

- '우상의 눈물' 에서 우상은 '나' 를 비롯한 학급의 아이들 사이에서 비록 허상이기는 하나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 온 기표를 가리키는 것이다.
- 우상이 홀리게 되는 눈물이란, 기표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담임과 형우의 위선적인 폭력으로 인해 맞게 되는 최후를 의미한다.
- > 이러한 기표의 최후는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기표의 편지를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남.

인물 관계도



『우산의 날』 전성국

주제: **의의를 가진 위선의 폭력성**

*위선: 겉으로만 착한 척함

줄거리: 새학기 임시 반장이 된 '나'는 메스껍게 꼴었다는 이유로 **재수파**에게 폭행을 당하게 됨. 얼마후 새 담임은 '나'에게 반정직을 맡길 테니 **학급의 정보를 자주 알려달라** 함. 1학년때 철자 노트에 대한 회의와 담임의 의도를 파악해 거절 후 '임형우'를 추천함



이후 형우와 담임은 재수파를 해체 시키고 **기표를 몰락**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움. 형우는 기표에게 권닝을 도와주겠다고 권닝을 주도해 기표를 무력화 시키려함. 하지만 기표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어 재수파들에게 폭행을 당함



하지만 형우는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기표의 어려운 사정을** 반 아이들에게 밝혀 모금 운동을 벌임. 기표의 이야기는 퍼지고 퍼져 신문에 실리고 영화 제작까지 됨. 이에 두려움을 느낀 기표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남기고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됨.**

나 위선의 폭력성이 나타남.

<p>나</p> <p>이글의 서술자 '나'는 글 속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들으며 경험함.</p>	<p>형우</p> <p>시적 상상력과 공적 상황에서 판정하는 안 이(리더십)인 권닝자이인 인물 약을 찾아가기 위한 모더는 약</p>
<p>담임</p> <p>학생들에게 능숙한 지식을 유선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선자, 권닝자이 인물.</p>	<p>기표</p> <p>형식적인 난폭한 약 재수파의 이더 ← 담임과 형우의 주변 말한 말에 취임</p>

『우산의 날』 전성국

- 갈래: 단편소설
- 배경: 1970년대 학교
-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 갈등구조: 기표와 담임, 형우 사이의 갈등 / 갈등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 발단 // 임시반장인 나는 재수파에게 폭행을 당함.
- 전개 // 형우가 반장이 되고, 반장과 담임은 기표의 비행이 없도록 노력함

위기 // 부정행위를 도움으로써 기표의 자존심을 건드린 형우가 폭행을 당하고 인 원하면서 끝내 함구함

절정 // 담임과 반장의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끝내 기표는 무기력한 학생으로 전락 함.

결말 // 기표는 가출하고, 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무서워 살 수 없다.'는 기표 의 목소리를 듣는다.

< 우 상 의 눈물 >

3615 장원서

[등장인물 정리]

↗ 소설의 서술방식

'나' (이유대) - 인칭 회자. 공복 질한오 대상에 대한 분석적이 뛰어난 고등학생으로, 반에서 일어난 기표에 대한 합법적 폭력의 무서움을 목격함.

최기표 -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을 힘을 가진 인물로, 담임과 형우에 의해 힘을 잃고 두려움을 느껴 학교를 떠남.

임형우 - 리더십 ↑, 학급을 헌신적으로 이끄는 모범생, 담임선생과 결탁하여 치밀한 계락을 통해 기표를 부활화시키는 위선적 인물.

담임 선생 - 겉으로는 '자율'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무시안일을 추구하려는 권위적인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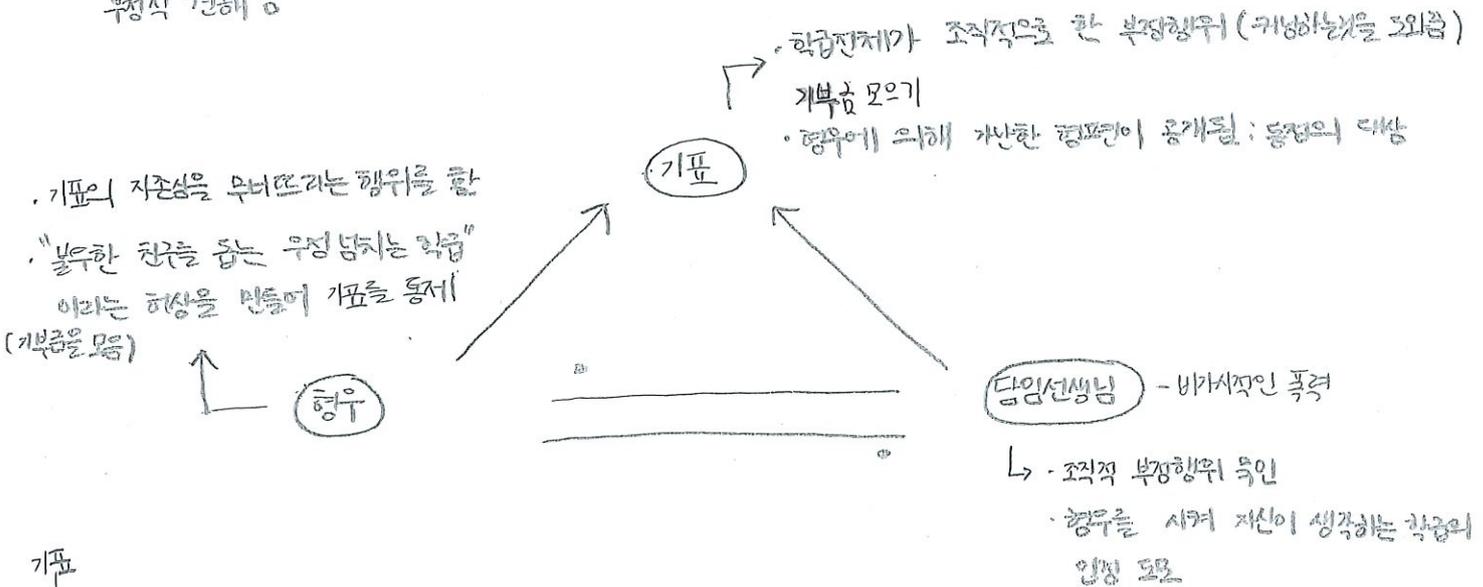
형우 - 배가서적인 폭력

형우의 리더십 인정,
BUT 합법적 권력을 이용하여
학급을 관리하는 위선적인 모습에
부정적 견해 0

'나'

기표 - 가세적인 폭력

물리적 폭력 두려움 느낄
BUT 형우의 계략대로
기표가 연민의 대상으로 전락함치 X



기표

[우 상 의 눈물 인 이유]

-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견디지 못하진 괴롭힘보다는 '기표'의 모습

[이후 내용]

형우, 기표에 가정 형편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

→ 반 아이들, 울은 저쪽, 공사장일, 자신의 피를 뽑아 돈 받아 기표를 도와줌

→ 기표, 이쪽도 기표 속사처하지 X 부끄러움을 많이 띠고, 애절한 아이로 변함 → 학교를 떠남